

문화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최고의 클래식 향연

이건음악회, 7월2일 '베를린 필하모닉' 브라스 앙상블 초청공연

피날레곡 '아리랑 판타지' 눈길... 국의 연주자에 우리 정서 알려

'세계 최고의 브라스 앙상블 팀을 만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속 브라스 앙상블 팀이 오는 7월 2일(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를 찾는다.

광주일보사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친환경 건축자재 기업 이견산업(주)(회장 박영주) 등 5개 관계사와 함께 진행하는 '제 23회 이견음악회'를 통해서다.

서울 예술의 전당 등 5개 도시에서 공연하는 베를린 필 브라스 앙상블은 오케스트라 내 가장 오래된 실내음악 단체로 도치 그라모폰 레이블의 음반을 통해서도 클래식 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룹이다.

각 멤버들은 명실공히 각 악기 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 솔리스트들로 그들의 정기연주회 뿐 아니라 솔레시비 힐스타인 등 세계적인 음악 축제에 빠짐없이 초청받는 최고의 금관 그룹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첫곡은 오라토리오

'삼손' 중 '빛나는 세라핌', '왕국의 불꽃놀이' 모음곡 중 '환희' 등으로 구성된 '헨델의 명곡들로 엮은 모음곡'이다.

이어 바흐의 '코랄 전주곡' 중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베버의 '마탄의 사수' 등 고전음악을 거쳐 덴마크 작곡가 제이콥 가데의 '질투의 탱고', 영국 출신 고프리처드의 '최상급 포도'에 대한 오마주' 등 현대 음악이 이어진다.

또 '달빛 세레나네' 등 미국 재즈 황금기에 활동했던 트럼본 연주자 클렌 밀러의 대표곡을 메틀리로 들려준다.

이날 피날레곡으로 연주되는 '23회 이견음악회 엔딩곡, 아리랑 편곡 콘테스트' 입상작 '아리랑 판타지'(성한경 작곡)는 특히 눈길을 끈다. 이 콘테스트는 이견음악회와 국의 연주자에게 우리의 정서를 알리고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한국의 대표 민요인 '경기 아리랑 선율'의 모티브들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유기적으로 재구성된 이번 수장작은 특히 연주를 맡게될 베를린 필

라스 앙상블이 직접 선정해 화제가 됐다.

무료로 관객들을 초청하는 이견음악회가 시작된 건 지난 1990년이였다.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선사하자는 게 그 출발이었다.

체코의 '아카데미아 목관 5중주단'을 초청하며 시작된 이견음악회는 지금까지 세계적인 클라리넷 연주자 사론 캄, '로드 아일랜드 색소폰 4중주단', 피아니스트 김선욱, 영국의 '더 스미스 콰르텟', 체코의 '베네비츠 콰르텟' 등 정상급 연주자를 초청, 클래식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이견음악회는 특히 더불어 봉사자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연주자 섭외 및 기획, 대관 등 모든 과정을 입자민들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티켓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일보사 16층 문화사업국에서 1인당 2매씩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문의 062-220-05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7월2일 광주에서 공연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라스 앙상블.

여름밤 첼로의 진한 향기가~

김황균 독주회, 오늘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김황균 독주회가 1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호남예술제 최고상, 예원 음악 콩쿠르 일등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던 김씨는 전남대를 거쳐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 음악대에서 수학했다. 이탈리아 바레타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는 등 다양한 콩쿠르에서도 수상했다.

현재 메타필로스 첼리스트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광주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슈만의 '아다지오 알레그로',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2번',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첼로 소나타 F 장조'다.

김씨는 12일과 17일에는 순천문화회관과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클래식 팬들을 만났다. 전석 초대, 문의 나투어 뮤직 010-6551-1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 팬들을 만났다. 전석 초대, 문의 나투어 뮤직 010-6551-17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돌·물·풀... 생명을 채웠다

대담미술관 3주년... 9월26일까지 이영학 초대전

담양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아트센터 대담이 개관 3주년을 맞아 불만한 전시·공연 행사를 마련했다.

아트센터 대담(관장 정희남)은 20일 오후 7시 담양군 담양향교리 대담미술관에서 3주년 기념식을 갖고 조각가 이영학의 초대전을 9월 26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조각계를 대표하는 작가로, 청동·돌·무쇠 등을 활용해 한국적 정서가 담긴 작품들을 만들어 '미다스의 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씨의 작품 22점이 선을 보인다.

호남지역에서는 최초로 마련

된 전시인데다, 두상 시리즈 외 작가가 전국을 돌며 모은 깃털, 주춧돌 위에 물을 담거나 이끼 등 야생물을 채워 특유의 상상력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 '石·水·草' 시리즈도 전시돼 40년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아트센터 대담은 서민재 한국 교원대 교수와 토키토 준코의 클래식 기타 공연을 비롯, 버클리 음대 출신의 싱어송 라이터인 퓨어 김과 해바라기의 공연 등도 마련해 관객들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061-381-008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石·水·草'

어등산은 '거대한 절골'이었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 16개 절터·입류정·고인돌 등 문화유적 확인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 자락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16개나 되는 절이 있었고 자연마을의 명칭도 모두 절의 명칭을 사용하는 등 어등산이 '거대한 절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서 김인후, 고봉 기대승 등 수많은 선비와 의병장들이 어등산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을 정도로 뛰어난 경관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입류정(臨流亭), 고인돌, 가마터 등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가 어등산불교

유적 복원을 위해 조사한 '어등산 절터와 불교문화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이종표·류복현·정희행)에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광산구 운수리는 여운사(余菴寺) 천문사(天雲寺) 보광사(普光寺) 운수사(雲水寺) 등 4개의 절이 있어 절골로 불렸고 현재 그 절터가 남아 있음이 확인 되었다. 또한 어등산 자락에 인 우산동 불당골과 신촌동 일대에도 여러 개의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양계 삼강문 비루 효 열비, 고인돌 등 역사적 유물을 간

직한 전통마을이 이어져 오고 있고 산정리 서봉이 등립리 일대에 절그릇 가마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활용 가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등산은 호남 의병의 최대의 격전지로 의병 선양사업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어등산은 50여년 동안 육군 포사격장으로 사용되면서 산허리 일부가 망가졌고 최근에는 어등산 골짜기가 들어서면서 문화유산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톡톡! 현대미술'

오늘 변길현씨 강연

광주시립미술관은 19일 오후 2시부터 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 교육 '톡톡! 현대미술' 강의를 연다.

이번 강의에서는 변길현(사진)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강사로 나서



요셉 보이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의 탄생'을 주제로 강의하게 된다.

변 학예연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젊은 큐레이터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613-7150. /김지을기자 dok2000@

'누리대화마당'

21일 노성대씨 강연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설립된 누리문화재단(이사장 이혜명)이 진행하는 제55회 누리대화마당이 오는 21일 오후 7시 누리문화재단 강의실(광주시 동구 대인동 무등사람 2층)에서 열린다.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이야기마당에서는 노성대(사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광주, 문화로 살 수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62-225-00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30주년 국제보험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험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